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총력’



임택 동구청장

지역화폐 확대·카드 수수료 지원
AI 기업 유치…실증 밸리 조성도

광주 동구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병오년을 맞아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역점 사업의 결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4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동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고 민생 경제 방어막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확대 벌행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AI 산업·실증 밸리 조성과 AI 헬스케어 기반 혁신기업 유치 등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여성·아동·고령의 3대 친화도시로서 어르신과 1인 가구, 장애인 등 주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하고 당연한 권리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실현에도 힘쓴다.

특히 올해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아픈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고 관광이 도시의 새로운 운동력이 되는 ‘체류형 예술 여행도시’로 한단계 도약도 꿈꾼다. 2회를 맞이하는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추억 시리즈를 연례회하는 동시에 그간의 역사와 명성을 토대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성장시키는 계획이다.

임택 청장은 “올 한 해도 동구의 희망은 주민 속에 있다”는 각오로 끝없이 주민의 질문에 답을 찾고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를 향해 진일보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인재영 기자

착한 경제도시 돌봄 특구 완성



김이강 서구청장

골목경제 활력·소상공인 중심 지원
보건소-권역별 건강센터 연계 정착

광주 서구는 2026년 구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착한 경제도시’와 ‘돌봄 특구’, ‘생활 속 정원문화 도시’ 등의 완성을 제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골목에는 활력이, 집 안에는 돌봄의 온기가, 마을에는 푸른 공원이 펼쳐지는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서구의 변화가 주민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착한 경제도시’ 완성을 위해 서구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과 ‘공공배달 앱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특구 광주 서구’ 위상 강화에 나서고자 ‘서구 아너스’를 중심으로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와 권역별 통합건강센터를 연계한 ‘공공의료 돌봄 모형’을 정착시켜 품질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삶과 일, 여가가 15분 생활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15분 정원문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상 가까이에서 쉼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자치를 통해 생활 속 정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들로 ‘함께서구 행복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춘발산공작소’,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을 중심으로 전 생애 교육체계를 구축해 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배움이 이어지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이강 청장은 “서구의 발걸음은 2026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구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장 부지런한 발과 귀가 돋보장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민생 경제 회복 주민 안전 강화



김병내 남구청장

대촌동 산단 기업 유치 총력
‘재생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

광주 남구는 2026년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한 변화 주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4일 “올해는 주민과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우선 골목형 상점가 85곳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소상공인 희망대출 및 특례보증, 군분로 토요야시장 운영 확대 등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며 각종 사업으로 지역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여가 공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 대촌동 국가·지방산단 기업 유치에 활발히 나서며 송암산단에는 미래자동차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거점을 육성한다.

양립동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도전과 사직동 시간우체국·살롱 드 사직 완공으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백운광장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고 남구 국민체육센터,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애여장, 대촌동 축구장, 덕남동 힐링숲 캠파장 등으로 체육·여가 공간도 활성화한다.

주민 안전을 위해선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광주천 출입 통제 차단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

이 밖에도 남구는 보건·의료·돌봄·주거 연계 통합돌봄, 위기구구 발굴·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 무료 버스·천원 택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등으로 전 세대 쾌적계층을 돋는다.

김병내 청장은 “새해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21만 구민과 함께 민생을 지키고, 남구의 미래 성장을 흔들림 없이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민생·일상·미래 단단한 북구로



문인 북구청장

현장 중심 행정 구민 뒷받침
‘5극 3특’ 기조 속 미래 준비

광주 북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래를 향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4일 “위기의 시간을 넘어 민생과 일상, 미래가 함께 단단해지는 북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위해 북구는 지역 화폐 발행을 이어가고 라이브커머스와 북소e몰 운영을 확대해 골목에서 시작한 도전이 더 넓은 시장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의 토대를 다지고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과 네트워크를 체계화하는 ‘골목형 상점가 상인 교육관’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주거·돌봄·안전 정책을 촘촘히 이어가 구민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북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출발선에서 겪는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북구형 사회주택’ 입주 사업도 시행한다.

건강주지의 추진단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강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각 구민에게 맞춤형 돌봄이 달을 수 있도록 북구는 주치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참여 의료기관과의 교육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 기반을 확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구현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뤄낼 방침이다.

문인 청장은 “기존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의 죽이 되는 새로운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기조 아래에서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래를 뒷받침하는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주권자 뜻 반영 혁신 구정 계속



박병규 광산구청장

제안·토론 바탕 자치분권 강화
사회적 약자 위한 안전망 ‘촘촘’

광주 광산구는 병오년에도 주권자의 뜻과 비판이 담긴 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4일 “시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도시 곳곳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주권자의 뜻’을 꾸은 광산구는 시민의 제안과 토론으로 구정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의제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자치분권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어르신, 고립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노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청년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을 시민과 함께 설계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안전 확보와 아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문화·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축제와 인문학 프로그램을 생활권 가까이 확산시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광산의 품격을 높이는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쓰레기 김량과 재활용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습지, 하천, 숲 등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행동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박병규 청장은 “광산 시민의 연대와 참여가 있었기에 술한 위기를 넘어 도약할 수 있었다”며 “42만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상생과 혁신의 광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최고 품질 사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